

# 지역 영화인력 인프라 확장

전주영상위, 오늘 '영화학교' 오리엔테이션  
 운가은 감독 팀이 강사로 참여 연출 교육 진행  
 수강생 전원에 300만원의 교육지원금 지원

(사)전주영상위원회(이하 전주영상위)는 8일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층 공유공간에서 전주시지역의 영화인력 인프라 확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2020 전주영화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전주시 문화정책과, 7명의 수강생 및 강의를 맡아줄 '우리집', '우리들의 운가은 감독과 각 분야 스태프들, 전주영상위원회의 박흥식 운영위원장과 직원들이 참여한다.

전주영화학교는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전주영상위원회의 신규사업으로, 장편영화 연출을 희망하거나 전문영화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영화인을 대상으로 영화연출의 세부 분야별 교육과 장편영화 기획·개발 멘토링 교육을 진행한다.

전주영상위는 지난 6월 공개 모집을 통해 전라북도 거주 만 19-39세 이하의 7명의 영화연출자를 선발했고, 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전주영화학교는 생생한 현장 교육을 목

표로 독립과 상업, 예술영화의 경계에서 우수한 역량을 자랑하는 장편영화를 선정, 해당 영화의 감독과 스태프들이 각 파트별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운가은 감독과 두 편의 영화에 참여한 제작·촬영·미술·편집 파트 키스팀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전주영화학교에서는 장편영화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의 기획·개발 멘토링 수업과 연기·특수효과·영화음악 등의 전문가 특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초방된 멘토링 강사는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 '해치지 않아'를 연출한 손재곤 감독과 '김종욱 찾기', '정직한 후보'의 장유정 감독이다.

시나리오는 교육이 종료되는 10월 중 피칭 심사를 통해 2명의 수강생을 선발, 각각 700만원의 기획·개발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강생 전원에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전주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전주를 비롯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의 등용문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전주영화학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0 전주영화학교' 오리엔테이션 포스터

한편 전주영화학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상위 사무국 기획홍보팀(063-286-0421(내선번호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고향을 찾은 '소리꾼'

남원출신 이봉근 첫 주연  
 데뷔작 뮤지컬 영화 상영회

남원시는 남원출신 이봉근(사진)이 첫 주연한 데뷔작 영화 소리꾼(판소리 뮤지컬)의 상영회와 팬미팅을 8일 남원메가박스 1관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상영회는 이날 팬 미팅을 진행한 뒤 오후 4시와 오후 6시 30분 등 2차례 진행된다. 이 영화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꺾박받던 조선시대, 가난한 소리꾼이 눈이 먼 딸과 함께 납치된 아내를 찾아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소리를 하는 이야기로 구성

돼있으며, 이봉근은 주인공 심학규 역을 맡았다.

주연을 맡은 이봉근 씨는 중학생 때 아버지 권유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남원 국악예술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를 나와 수많은 무대에 서다 이 영화로 첫 스크린 연기에 도전하면서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남원시는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인 판소리 고장 남원에서 태어난 그가 첫 스크린에 도전한 작품인 소리꾼을 통해 판소리 위상을 더욱 높이고, 판소리 장르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책 속 캐릭터로 엮서 만들어요'

무주도서관, '그림책 너도 한번 만들어 볼래?' 체험행사  
 '거북이 마을 시리즈'로 유명한 정지윤 작가와 함께 해

무주도서관(관장 옥경중)은 오는 18일까지 '그림책, 너도 한번 만들어 볼래?'라는 제목으로 그림책 체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림책 체험 작가는 거북이 마을 시리즈 '수상한 너구리 아저씨', '거북이마을의 진짜 보물', '엉뚱한 발명가 따라와 따로'의 여러 동화를 펴낸 정지윤 작가가 함께한다.

체험행사는 그림책 원화 및 그림책 속 캐릭터와 정지윤 작가의 작업스케치 전시되는 상설 전시와 책 속 캐릭터로 가면만들기, 캐릭터 도장을 이용해 나만의 엽서를 만들 수 있는 상설 체험이 전시되고, 7일~10일 학교별 예약 체험과 11일 도서관 예약체험을 진행한다. 8일에는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어 정지



무주도서관은 오는 18일까지 '그림책, 너도 한번 만들어 볼래?'라는 제목으로 그림책 체험을 진행하고 밝혔다.

윤 작가의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한편 무주도서관 재개관과 함께 진행되는 그림책 체험은 도서관을 찾은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상설전시와 상설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옥경중 관장은 "그림책 전시를 통해 많은 지

역주민들이 동화책과 가까워지는 좋은 경험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킹덤' 속 한국은 이런 곳... 넷플릭스로 한류관광 홍보

관광공사, '익스플로어 코리아' 공개

드라마 '킹덤' 등 인기를 끈 한류 콘텐츠들과 함께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영상이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넷플릭스와 협력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담긴 한국의 고유한 미(美)와 매력을 모아 제작한 특별영상 '익스플로어 코리아(Explore Korea)'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한류 관광객을 겨냥했다. 지난해 한류관광시장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류 관광객의 재방문 의향은 88.3%로 일반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3.6%포인트 높고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을 추천할 의향도 92.3%로 일반 외국인 관광객보다 4.0%포인트 높았다.

또 한류관광의 지난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61억 달러(19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영상은 한국 전통 의상과 궁궐, 음식 등 고유의 관광매력을 담은 것으로 과거와 현

재, 역사와 문화뿐 아니라 생활방식 등 다양한 모습을 조명했다. 특히 갯 등 조선시대 전통 의복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이끈 '킹덤'을 비롯해 '범인은 바로 너!', '종이하인 울리는' 등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포함됐다.

이 밖에 '세프의 테이블', '길 위의 셰프들: 아시아', '필이 좋은 여행, 한입만!',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P.S. 여전히 널 사랑해' 등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넷플릭스는 한국홍보 영상에 등장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넷플릭스 서비스상에서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한 '익스플로어 코리아' 검색 컬렉션도 제공한다.

관광공사는 해당 영상을 관광공사 해외홍보 유튜브(youtube.com/visitkorea)를 포함해 본사와 해외지사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